

# “文대통령 중요한 순간마다 행방불명”

유튜브서 안철수-진중권 대담 공개

安 “與, 박원순 죽음마저 선거 이용...조문 안간 이유”  
 陳 “여권 젠더 감수성, 자기 출세만을 위한 상징 자본”  
 부동산 정책 실패 성토...“국토부 주무부서여선 안돼”  
 통계 취사선택도 지적...“대통령 입열면 코로나 터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안철수'를 통해 공개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와의 대담 영상의 한 장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가지 않은 데 대해 “정말 가고 싶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계산하에 죽음까지도 이용하려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차려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안철수'를 통해 공개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 진중권 권토코'의 2차 공개분으로 지난 1차 영상은 조회수 50만뷰를 넘어 서며 인기 영상 대열에 올랐다.

안 대표는 대담에서 “대통령도 대선 때 페미니스트라고 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모두

‘젠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분들”이라며 “모든 계 선거에서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여권 인사들의 젠더 감수성은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 자본이 아니었나”라면서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한 대응은 이제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자기 배반들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서에서 정작 하셔야 할 말씀은 없더라. 미안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했다.

안 대표와 진 전 교수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태도에 실망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시민 여성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진영 논리로 접근했다”면서 “비정부가기가 아니라 친정부 기구”라고 했고, 진 전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조국사태, 윤미향 사태에 이어 많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0푼0리”라면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인사가 있다.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설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문해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 수준에서 다른 부처들과 종합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은 당이 잘못 결정했을 때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대통령은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찾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한다. 행사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춘다. 대통령이 질문을 다 받고 반박하고 또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또 국론 분열 요인으로 잘못된 통계를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인용하는 통계 자체가 현실과 너무 다르니 결국 실망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진실, 현상을 속일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숫자로 장난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갑자기 집값 떨어졌다고 했는데 부동산 3법 통과된 지 얼마됐다고 벌써 결과를 이야기 하는 거냐”면서 “늘 대통령 ‘말씀’이 문제다. 코로나도 대통령이 좋아졌다 그러면 또 터지고 이렇다”고 했다.

뉴시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 시진핑 우선 방문국” 한중 관계 정상화 ‘청신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한반도 내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불법 통과된 지 얼마됐다고 벌써 결과를 이야기 하는 거냐”면서 “늘 대통령 ‘말씀’이 문제다. 코로나도 대통령이 좋아졌다 그러면 또 터지고 이렇다”고 했다.

보였다.

양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연계협력 시범 사업 발굴 등과 같은 현안들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

모두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안건들로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FTA 2단계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1차 한중 FTA

## 서동용 의원, 지역혁신 위한 지방대학 혁신 추진 방향 토론회 개최

“지역 산업·실정 맞는 인재 선택·집중 육성 지원”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교육혁신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를 맡은 흥진태 충북 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은 인구 감소 등 전방위적인 지역위기 심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 혁신과 지역혁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충북의 바이오

스 허브 사업 모델을 예로 들어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 플랫폼 구축과 지역 공유형 대학의 나아갈 방향을 소개했다.

남궁문 원광대 총장은 지 미국의 산·학·연·관 라운드 테이블 사업, 일본의 제조업 비즈니스 사업, 독일 및 네덜란드의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세계 각국의 대학-지역 협업 혁신 모델을 소개하며 자체-대학-산업체 및 연구소 등 각 지역혁신 주체 간 조화속에 지역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틀



의 정책이며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지방의 대학은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이러한 지역의 위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많은 지방

대학의 사정이 어려운 지금 지방대학이 역량을 발휘해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를 선택·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혁신과 지방대학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